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4년 1월 제286호 http://cnmhs.net

여지망
주식회사 대미농수산
대표 정 관 성 (17회)
010-5401-5090
대전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47 (용전동)
Tel (042) 638-4988 Fax 638-4983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정관성 편집인 : 임동현 인쇄인 : 민운기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충기 모교 덕분이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계룡산 수통골에서 개최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둘러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1월 13일 신년교례회는 여느 때와는 달리 대전 도심을 벗어나 계룡산 자락 수통골에서 시산제를 올린 후 점심을 먹으며 진행되었다. 자연에서 등산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니 얼굴에 혈색이 돈다.

흔히 "동문회 모임에서는 정치얘기 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분열이 될 수도 있다"는 동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기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오는 4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준배(23회,세종 을), 강노산(24회, 대전서구 을), 조재환(31회, 금산, 논산, 계룡), 김용경(32회, 대전서구 갑)은 비록 정치색을 띠고 참석했지만 수많은 동문들은 성향을 개의치 아니하고 진정으로 순수한 동문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였다. 고향집에 돌아온 자식을 맞는 심정으로 반갑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부둥켜 안아주었다. 우리 충기에서 최초로 국회의원이 배출될까? 이런 꿈같은 일을 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신년교례회장은 그야말로 출정식을 방불케 하였다.

나는 우리 동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 본다. 내 인생 삶에 80%를 결정해 준 충기였다. 밥숟갈 뜨고 이만큼 사는 것도 충기를 통한 德이 아니었던가?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혹은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화내고

충기총동문회 갑진년 신년교례회가 13일 오후 국립공원 계룡산 수통골에서 개최됐다.

고함치며 증오했던 그런 순간들은 오늘부로 종식되었다. 100여 명의

동문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응수(1회) 총동문회 고문과 백채준(14회 동문회장) 동문의 맞잡은 두 손과 뜨거운 포옹은 눈물 나도록 정겨운 장면이었다. 먼저 손 내밀며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우리 충기 동문들은 2024년 1월 13일 신년교례회에서 그 답을 찾았다. 신년교례회에 1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짧은 기간에 큰 홍보도 없이 이정도면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체육대회에서도 보았듯이 좀 더 많은 기수, 지역, 단체, 직장별에서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존립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도 다 알고 있다. 시대 변화, 교육 환경 변화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大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인문계와는 다른 충남

신년교례회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있다.

기공이기에 우리는 다시 뭉칠 수 있고 역사와 전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파트별로 기수별(1회~59회)로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2024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총동문회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차기 총동문회장으로 추천을 받은 김학만(18회, 우송대 교수)동문은 지역사회에서 큰 인물이고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박수용(18회, 한밭대 교수)동문 또한 충남기계공고의 위상을 크게 떨칠 동문이라고 알고 있다. 행사를 이끈 정관성 총동문회장과 민운기 사무총장과 집행부 임원, 그리고 진춘식 충기산악회장과 회원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늘 편하고 여유롭고 웃음 떠나지 않는 행복한 동문회였으면 좋겠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제96차 총동문회 이사회 공고

청룡의 해는 모교 개교 61주년을 맞는 갑진년입니다. 3만4천784명의 동문의 발전을 기약하는 뜻 깊은 해에 총동문회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6시~7시 식사후 회의
* 장소 : 태화장(대전시 동구 중앙로203번길 78(정동)
* 안건 : 제1호 의안 : 2023년 결산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 2024년 예산(안)의 건
  제3호 의안 : 총동문회장 추천의 건
  제4호 의안 : 회칙 개정의 건
  제5호 의안 : 정기총회 개최 일정의 건
* 기타 토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정 관 성

“열정으로 갑진년을 정말 값진년으로 만들어갑시다”

충기산악회 시산제 수통골 빈계산에서 정성껏 봉행

충기산악회(회장 진춘식) 회원들은 1월 13일 오전 10시 계룡산 자락 수통골에서 동문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산제를 지냈다. 계룡산 장한기운 뻗어온 자리에서 수학한 우리 동문들이다. 龍脈(용맥)을 찾아 나선 동문들은 계룡산국립공원에서도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수통골! 암탉의 모습을 닮았다는 빈계산에서의 시산제는 의미가 사뭇 크다. 암탉은 다산, 창의성, 부의 상징이다. 동문들에게 큰 풍요와 성취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 있어도 사위가 오면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서 요리해 주었는데 닭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풍속을 보면 경사롭고 즐거운 날에 주로 닭 요리를 했다. 특히 혼인과 관련된 행사 또는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행사에 닭고기가 많이 등장한다.

오늘 시산제와 신년교례회를 어울림 한 민운기(17회) 사무총장의 결정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물음에 답은 명료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준 우리 모든 동문들에게 청룡의 해를 맞아 계룡산 용맥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고 참석치 못한 3만 4천여 동문들의 건강, 풍요를 빌기 위함이었고 마침 새로운 정치에 도전을 하는 동문에게 성공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다.

누군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해도 힘든 시기는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당신의 ’열정’이다. 열정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암울한 시기를 뚫고 나가는 필수 동력이다.

시산제를 정성껏 올린 후 동문들이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많은 동문들께서 오늘 유난히 몸이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하였다. 동문들과의 유대를 통해 엄청난 기와 열정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었다.

긍정적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릴 수 있다. 가슴 뛰는 충기정신! 당신의 열정이 우리를 살린다. 선·후배가 한마음으로 써 내려가는 청룡의 해 2024년 갑진년을 정말 값진년으로 만들어 여태껏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화양연화의 한 해로 만들어갑시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시산제1

시산제2

시산제3

동문1

동문2

동문3

동문4

동문5

동문6

동문7

동문8

동문9

“선배 존경하고 후배 사랑하고 … 그게 진짜 동문인겨!”

신년교례회 플래카드

망중한1

망중한2

반갑습니다

오응수 총동문회고문 건배 제창

인사하는 송주영 총동문회고문

정관성 총동문회장 인사

김학만 차기 총동문회장 내정자 인사

이우정 총동문회고문 인사

21회 동문들

17회 동문들

17회 장세정 동문

24회 동문들

즐거운 짐심식사

10회 동문들

14회 동문들

15회 전재홍 동문

진춘식 충기산악회장 인사

22회 동문들

선배와 후배의 포옹

기념품 배부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실 친구가 되면 좋겠다”

18회 동문들 ‘지란지교’ 끝없는 우정, 졸업40주년기념행사 해단식 가져

18회 동문들의 찐한 우정은 연륜이 쌓일수록 향기가 난다.

지난해 12월 고교시절 교복과 교련복을 입고 40년 전 과거로 돌아가 졸업40주년기념행사를 멋지게 치렀던 18회 동문들이 1월 19일(금) 저녁 40주년 행사의 해단 모임을 갖고 2024년 청룡의 해 주인공으로서 다시한번 값진 우정을 재확인하고, 향기 나는 지란지교<지초(芝草)와 난초(蘭草) 같은 향기(香氣)로운 사귐이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고상한 교제를 이르는 말)의 만남을 가졌다.

언젠가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시집과 유안진의 ‘지란지교를 꿈꾸며’의 수필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삭막해진 경쟁의 시대에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싹을 피우게 하여 주었고 연애편지에 단골문구로 필사되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은 친구가... /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며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 서로를 버티어 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같은 날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지란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라는 ‘지란지교를 꿈꾸며’ 수필의 내용 일부를 보며 18회 동문들의 우정이 부럽기만 하다. 18회의 대들보인 유병각 선배님과 산파역할을 하신 김영호 목사님, 지태구, 박종용, 마수용, 장영우 선배님 등이 모임을 이끌어 든든하기만 하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충기인 감성, 시로 적나라하게 표현”

〈동문탐방〉 두 시인 이야기(임재정, 이태관)

눈 내리는 겨울밤 시 한 소절 어떠세요? 충기공을 경험했기에 두 분의 시에 더 공감이 가고 현실적이다. 예리하고 풍부한 감성의 시인 임재정 동문〈**사진 왼쪽**〉 이태관 동문은 17회 동기생이다.

임재정 동문은 2023년 초에 두 번째 시집 ‘아돌프 내가 해롭습니까’를 출간했다 이태관 동문은 2023년 10월 어느 날 다섯 번 째 시집 ‘어둠 속에서 라면을 끓이는 법’을 출간했다.

임재정동문은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출생. 2009년 진주신문 가을 문예에 작품 ‘뱀’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고 2018년 문예중앙을 통해 첫 단행본 ‘내가 스패너를 버리거나 스패너가 나를 분해할 경우’를 출간하였다. 제목부터 충기인의 자존감을 풍기며 화제를 모았다.

전기공 시인으로 알려진 임재정 동문이 5년 만에 출간된 시집 ’아돌프, 내가 해롭습니까’는 “불온한 레지스탕스 시인 임재정, 자본주의적 환상에 한방 먹이다.”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찬사와 함께 여러 곳에 소개되었다. 시집 곳곳에서 등장하는 전기공 화자는 임재정 시인의 실체 자신이다. 그에게 시와 노동은 샴쌍둥이처럼 한 몸을 지닌 두 존재다. 삶의 모든 순간이 자본에 고용되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의들. 노동을 매개로 일상을 통제하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과 휴식, 삶의 문제를 되돌아본다.

이태관 동문은 1964년 대전에서 출생. 1990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고, 1994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저리도 붉은 기억’ ‘사이에서 서성이다’ ‘나라는 타자’ ‘숲에 세 들어 살다’가 있다. 5번째 시집인 ‘어둠 속에서 라면을 끓이는 법’에서 이태관 동문은 온몸으로 시를 썼다. 가슴, 머리, 술, 낭만적 감성은 절제와 함축을 통해 은밀하게 다스려지며 도처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정감으로 표출된다. 직접적 경험과 실질적 사고를 중시하는 그의 시는 현실과 닮았다. 그의 시는 도처에 유랑자의 애수가 짙게 깔려 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자아 탐구적 발걸음이며 감성의 지문으로 담백하고 담담하다. 평소 여행을 다니며 경험한 것들이 투영된 결과였다. “여행을 다니면서 느껴지는 햇살, 바람 등의 요소들과 삶에 대한 성찰이 시에 많이 투영됐다”고 말한다.

이어서 얼마 전 대전에서 활동하는 시인 옥빈(장영옥 18회) 동문이 17회 선배 시인 두 분(임재정,이태관)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충기 동문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주어진 현장에서 가장 사람다운 시를 쓰시는 세분의 만남을 기대해본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올해 초에도 전회원 발전기금 납부

청심회, 박춘자 회원에게 감사패 수여

방직과9회 청심회(회장 김순규)는 1월 모임에서 박춘자 회원(방직과 9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춘자 회원은 청주에 살면서도 매월 둘째주 토요일 대전모임 장소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 귀감이 되었다.

방직과 9회 청심회 회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연초에 김순규 권병근 박춘자 송병전 노태평 조동민 최재일 이주경 감정곤 우창배 한공수 송진헌 박천길 회원 등 13명 26만원의 발전기금을 총동문회에 보내왔다.

“머나먼 남쪽 타향에서 끈끈한 정 나누었다”

창원동문회 신년회 1월 20일 화기애애하게 개최

2024년 1월 20일(토)에 창원 상남동에 위치한 화돈화우에서 충남기계공고 창원동문회 신년회를 이영관(12)회장과 류오현(8)고문, 김영훈(12)고문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머나 먼 남쪽땅 타향에서 동문들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정겹게 마련했다.

창원동문회의 최고참이신 8회 류오현 선배는 매번 모임 때마다 빠지지않고 참석하셔서 동문들의 화합을 강조하고 두툼한 봉투까지 건내 사기를 올렸다. 이영관 회장은 금년도 동문들과 함께 하는 충창회 일정계획을 발표하고 선후배간의 많은 담소속에 행원권 추첨으로 마무리 하였다.

–송장의(12회) 창원동문회 총무–

“올해 150명까지 회원 늘려보자”

경기북부동문회 신년모임 활기

경기북부 동문들은 1월 11일 신년모임을 갖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고교 동문들과의 동행길이 행복의 요소임을 확인하고 함박웃음으로 힘찬 용날개 짓을 시작하였다.

2024년을 이끌어갈 최기춘(15회) 회장의 친화력으로 송영호, 배기룡(3회), 김인기(7회) 고문님을 위시하여 강희창, 이동희, 최성구(12회), 김승환, 최재흥(14회), 최기춘, 최재국, 최용선(15회), 류운선(16회), 한흥석(17회), 박성조(18회), 김경수(19회), 임채호(20회), 임동현(21회), 박덕신(23회), 최중호(24회), 길상인(25회)동문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날 최기춘 회장이 고급타올을 선물하였으며 1차 식대비 75만원은 강희창(12회) 선배가 흔쾌히 쾌척하였다. 2차 전골집에서는 임동현(21회) 동문이 맡았다.

서울동문회에서도 30만원을 보내왔다. 월례 모임 시에는 참석자에 한하여 2만원씩 내는데 한흥석(17회) 동문이 20만원을 후원하였다. 감사를 맡은 최용선(15회) 동문은 “경기북부에는 많은 동문들이 살고 있다. 150명까지 확장해보자”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연락처〉
회장 최기춘 (15회. 010–5815–0242)
총무 김경수 (19회. 010–2440–8137)

임재엽상사 묘앞에서 추모 참배

14회동문회 주관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14회동문회(회장 백채준) 동문들이 10여 년째 주관하는 대전국립현충원 호국영령참배와 모교출신 임재엽상사의 추모참배가 1월 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 정관성 총동문회장과 이원승 예비역준장(8회), 이재범 전 모교 교사(8회), 이종업 전 모교 교장(14회), 임화섭 설송회보 편집위원 등 동문들이 참석하여 경건하게 참배했다.

동문들은 10시 10분전 미리 도착해서 14회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추위를 녹이며 서로의 신년덕담을 나눴다. 정각10시에 참배를 하고 위패가 모셔진 내부도 들어가서 관람했다.

이어 모교 38회 임재엽 상사의 묘소로 이동해 추모참배를 하였다.

– 장찬희 편집위원(22회) –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제59회 모교졸업식 229명 졸업, 현재까지 누적 34,784명 동문 배출

정관성 총동문회장이 모교 졸업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졸업식 후 정관성 회장이 후배의 인사를 받으며 격려하고 있다.

모교 제59회 졸업식이 1월 9일(화) 오전 11시 모교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한 모교 59회 후배 졸업생은 모두 229명으로 현재까지 모교는 총 34,7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특성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모교 졸업생은 HD현대건설기계, 대전시청 등에 취업한 학생이 다수이고, 충남대 외 4년제 대학에 57명이 진학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정관성 총동문회장이 참석하여 우수학생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선물하고 격려사를 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졸업생을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과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졸업생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는 모교 운영위원장인 권오진(31회) 동문도 참석하여 “인생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 고 후배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 송예경 총동문회 총무 –

“모교 협약형학교 전환 동문 협조 절실”

이종업(14회) 전 모교 교장 호소

우리학교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역산업체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학교도 협약형 학교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전에는 큰 기업들이 적습니다. 큰 기업으로 코레일, 계룡건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학 협약형 학과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대(큰)기업들도 협약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영향력 있는 동문님들이 적극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3월 29일까지 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학교가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을 찾는 일이 무척 어려워 동문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협약형 학교는 정부가 마이스터고 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충기 방문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충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동문회는 신속히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적극 학교를 도와주세요.

– 이종업(14회) 전 모교 교장 –

“충남기계공고 대안으로 삼아야”

특성화고 활성화방안 포럼 열려

대전세종연구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특성화고 활성화방안” 논의를 주제로 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수도권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현상에 맞춘 ‘대전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욱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장은 ‘대전 직업계고 체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직업계고 체제 개편 관련하여 반복 주입식 교육, 교육 정책 한계와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 등 직업교육 문제점 을 지적하며 ▶진로 미결정 학생 지원 강화, ▶후학습 지원 체계 마련 등 미래 직업교육 선도 위한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안 중에 “충남기계공고를 충남기계 카이스트 부속고등학교로 교명을 개명하고 졸업생 전원을 카이스트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줘야 한다. 카이스트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고등학교에서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았다.

충남대학교는 이공계 공학 특별반을 편성하여 충남기계공고 학생들을 위해 선취업하고 후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00% 열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충남기계공고 살리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게 시급하다. 올해 특성화고 특히 기계공고가 전부 미달되었는데 정원을 채운 곳은 충남기계공고 뿐이라는 것이 고무적이다.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 공직에 있는 힘이 있는 동문들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수입 현황

기간 : 2023년 12월 27일 ~ 2024년 1월 24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방	1	김진무	20,000	기	17	민운기	50,000
자	1	송주영	50,000	기	17	백준현	100,000
상	1	오응수	50,000	기	17	신석철	50,000
광	1	조남간	20,000	기	17	정관성	200,000
광	2	진일두	50,000	전	21	오원석	20,000
전	3	김용호	20,000	기	21	조정관	20,000
전	3	민철기	20,000	기	21	진춘식	200,000
전	3	박종남	100,000	기	21	최동준	500,000
전	3	염진영	20,000	기	23	임정호	50,000
전	3	오성민	20,000	기	23	한병수	50,000
방	4	김상백	50,000	기	24	박종호	50,000
전	4	한봉석	20,000	기	24	안영호	50,000
전	5	김흥년	20,000	기	31	권오진	100,000
광	5	윤석용	20,000	기	31	채의병(지훈)	20,000
전	7	김상구	20,000	단체	10회	동문일동	300,000
전	7	무기명(연락바람)	20,000	단체	17회	동문일동	100,000
광	8	김영준	20,000	단체	22회	동문일동	200,000
전	8	이창주	20,000				
광	8	진송식	20,000				
기	9	김범우	20,000				
자	9	서정식	30,000				
자	9	전명수	20,000				
전	10	곽용섭	20,000				
전	10	김용대	20,000				
전	10	최영관	20,000				
자	10	홍성주	20,000				
전	11	김현수	200,000				
전	11	남상천	20,000				
화	11	정락훈	20,000				
기	12	고인환	20,000				
기	12	송치영	20,000				
화	12	윤권재	100,000				
기	13	김태근	20,000				
기	13	박상영	20,000				
기	13	송치경	20,000				
기	13	신상우	20,000				
전	13	정성태	100,000				
기	13	정임조	50,000				
기	14	류제권	50,000				
기	14	임헌장	20,000				
기	14	임화섭	50,000				
기	15	박찬영	20,000				
기	15	송신호	50,000				
기	15	이성국	20,000				
기	15	정두현	20,000				
기	16	강범석	20,000				
전	16	성기일	20,000				
전	16	성열찬	20,000				

기성동문회 연회비

상	1	송석구	20,000
자	1	송주영	20,000
방	7	김용춘	20,000
방	8	유재균	20,000
자	8	윤치영	20,000
광	10	안주현	20,000
전	10	김태식	20,000
기	12	유병소	20,000
전	13	강석윤	20,000
기	13	김희준	20,000
기	13	송영헌	20,000
기	13	한상철	20,000
기	16	박철규	20,000
기	16	채홍종	20,000
기	19	김용협	20,000
기	19	류양수	20,000
기	20	김기찬	20,000
전	20	이경수	20,000
기	22	김정훈	20,000
기	23	이만규	20,000
기	26	김종일	20,000
배관	29	성하천	20,000

"모교사랑" 자동이체

방	1	박만영	10,000	기	17	서승영	10,000	기	27	송형태	10,000
방	1	백운길	10,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27	이문휘	10,000
상	1	오응수	10,000	기	17	양희곤	10,000	기	28	강문식	10,000
광	3	서한수	20,000	전	17	오명진	10,000	기	30	이정근	1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7	윤재경	10,000	기	31	강두형	10,000
방	4	송석범	10,000	기	17	이상봉	10,000	기	31	권오진	10,000
방	7	김민주	10,000	기	17	정관성	20,000	기	31	김태용	10,000
자	7	조봉호	10,000	금	17	정찬문	10,000	기	31	남지현	10,000
광	8	김재겸	10,000	전	18	마수용	10,000	기	31	오선균	10,000
화	8	이원승	10,000	기	19	임운택	10,000	전자	31	조경인	10,000
전	8	임헌표	10,000	전	19	임형일	10,000	기	32	장진학	10,000
자	8	정기원	20,000	기	20	김동로	10,000	배관	33	김명수	10,000
전	9	임세환고문	1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33	오규성	10,000
방	9	진한종	10,000	기	20	여명찬	10,000	기	33	이명호	10,000
방	10	김영갑	10,000	전	20	윤성덕	10,000	기	33	이재상	20,000
자	10	김창길	10,000	기	20	이석래	10,000	기	33	전우창	10,000
전	10	오창균	10,000	기	21	김기영	10,000	기	33	조승현	10,000
자	10	이경세	10,000	기	21	김용근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전	11	김용진	10,000	기	21	박원종	10,000	전	34	김용정	10,000
전	11	오연진	10,000	배관	21	박찬권	10,000	전	34	김윤섭	10,000
광	11	조동호	10,000	기	21	송석진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전	12	김기용	10,000	기	21	오흥석	10,000	기	37	박재현	20,000
기	12	라기원	10,000	기	21	유호문	10,000	기	39	김동연	10,000
기	12	서영환	10,000	전	21	임동현	10,000	금형	52	이승원	10,000
기	12	전종현	100,000	기	21	장명국	10,000	기	53	이영욱	10,000
기	12	천명재	10,000	기	21	한석원	10,000				
기	12	황규표	10,000	배관	21	황경아	20,000				
기	13	마평춘	5,000	기	22	김준수	10,000				
화	13	박대균	10,000	전	22	박종선	10,000				
기	14	김병갑	10,000	기	22	정기채	10,000				
기	14	백채준	10,000	기	22	정연근	1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22	조영백	10,000				
기	14	임화섭	10,000	기	23	윤인섭	1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3	이봉준	10,000				
기	15	서경원	20,000	기	23	이주한	10,000				
전	16	김희곤	10,000	기	23	임정호	10,000				
기	16	양희대	10,000	기	23	최병무	10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3	한병수	10,000				
전	16	장보환	20,000	전	24	김용석	20,000				
기	16	조성서	10,000	기	24	김형찬	10,000				
기	17	권오섭	10,000	기	24	박종호	10,000				
기	17	김용택	10,000	기	24	안영호	10,000				
기	17	김종수	10,000	기	25	강신철	10,000				
기	17	김진덕	10,000	전	25	김종필	10,000				
기	17	류승정	10,000	기	25	홍준용	10,000				
기	17	민운기	10,000	기	26	김윤태	10,000				
기	17	박환정	10,000	기	26	류한의	20,000				
기	17	백준현	10,000	배관	27	김도진	10,000				

청심회(방9회)연회비

방	9	권병근	20,000
방	9	김순규	20,000
방	9	김정곤	20,000
방	9	노태평	20,000
방	9	박천길	20,000
방	9	박춘자	20,000
방	9	송병전	20,000
방	9	송진헌	20,000
방	9	우창배	20,000
방	9	이주경	20,000
방	9	조동민	20,000
방	9	최재일	20,000
방	9	한공수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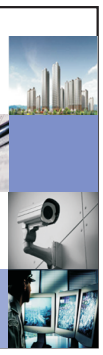
회보광고비

전	18	마수용	20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기	39	김동연	50,000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세종점 ☎044-867-2202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근로자파견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매연저감장치 DPF 건식클리닝
월드DPF클리닝 수리전문
세계특허 NFHTP 건식버닝 방식
대표 이남희 (9회) 010-5438-63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1
대표전화 1544-0572
FAX. (042) 934-2011
※ 토, 일요일에 예약가능 ※

(주) 필 엔 텍
FIL & TECH
대표이사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220~222호)
TEL. (042) 626-8548
팩 스. (042) 626-8549

(주) 서한 ENC
MIURA 충청대리점
기계설비1종 설계 및 시공
열사용기자재 취급 및 시공
기계소방용품 및 안전용품 취급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산업용 탱크 및 식품기계
차장 김 동 연 (39회)
010.9813.0139
042.935.0280
042.935.0281
starkjpn@naver.com
www.seohanenc.co.kr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9, B동 2층 202호

세무법인 이 정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북대전 · 대전세무서, 조세심판원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페인트 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 조색 OK) 도장공사
분체 · 액체 열처리도장
JEVISCO 대연상사
KCC 제일테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번길(대화동)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9, 140호
Tel. 042·670·7877, 7233 / Fax. 042·670·7876
E-mail. jmi4415@hanmail.net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Total Air Solution Air Compressor HKMComp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AIR DRYER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대 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번길(대화동)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Tel. 042·670·8962, 042·623·8962 / Fax. 042·670·8963
E-mail: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1번길 13 (대화동)

싱크마스터
N : 싱크마스터
대표 이 승 원 (52회) 010-5823-2171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96번길 34
https://smartstore.naver.com/sinkmaster
주방기기
주방싱크볼
사각싱크볼
원앙, 아스타 네모
싱크볼, 교체, 설치

경우금속주식회사
【구리 동 파이프 판매업】
대표이사 강 희 창 (12회) 010-3568-632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129번길 10
TEL : (031) 946-9813~4
FAX : (031) 946-9815
E-mail : kyungwoo9815@naver.com

meritz 메리츠화재

FP/ 대전본부
오 규 성 (33회)
Mobile. 010-9551-041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T.042-337-4004 F.042-337-4009
3490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빌딩 2층 www.meritzfire.com

HYUNDAI GENESIS
현대자동차
대전선화대리점
대전 중구 대종 545(선화동)
카마스터
이 용 주 (24회)
010-3404-6989
신차상담/할부/리스/렌트
TEL : 042-254-9000
FAX : 042-254-4000

큰우리요양병원
중풍, 치매,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 호스피스 전문

병원장 오 상 근 (6회) 010-2972-5354
대전시 유성구 학하서로 99 (덕명동 171-6)
Tel. 042-522-1001
Fax. 042-526-1100
사회복지법인 밀알 http://milalbj.or.kr
대표이사 오 상 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87 화성빌딩 4층
T. 042-627-0135 F. 042-716-7119
※후원계좌 : 하나 646-508185-00105 사회복지법인 밀알